

2025년 '전문신문 혁신의 해' 협회 발전 위한 사업다각화 모색할 것

신임 임원진 임명장 수여...제61차 정기총회 개최



제61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임원진 및 회원사 발행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광탁, 내외뉴스통신 발행인)는 지난 2월 20일 협회 사옥 건물 내 위치한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회의실에서 '제6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보고와 함께 △2024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등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다.

김광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협회는 모든 회원사의 협조와 성원으로 회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을 수 있었다”며 “올해를 '전문신문 혁신의 해'로 삼고 사업다각화와 수익성 제고를 목표

표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감사보고에서 백용태 감사(국토매일 발행인)는 사업 관련 “전문신문의 위상 제고와 회원사들의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포상 복원은 물론 사업다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협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경섭 감사(일요저널 발행인)는 재무·회계 관련 “올해는 사무국 구조조정과 협회보 발간 축소 등으로 다소의 개정건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아직 회계처리 방식에 있어 원칙에 부 적합한 방식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

은 개선해주시 바란다”고 말하며 감사보고를 마쳤다.

이어 의결 안건으로 상정시킨 ‘2024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협회 사무국은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있어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조를 대폭 강화해 나가면서 전문신문 위상을 제고는 물론 회원사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안정화를 위해 신규회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신문 광고수주 및 기

Korea Professional Media Association

한국전문신문협회 제61차 정기총회

일시 : 2025. 2. 20(목) 11:00

장소 :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회의실



김광탁 회장을 비롯한 고문단이 임명장을 받은 신임 임원들을 축하해주고 있다.

여금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타토의를 통해 박두환 명예회장(원예산업신문 발행인)은 “요즘 협회가 주무부처는 물론 유관기관과 소통하며 활동반경을 넓혀가고 있다”며 “이 분위기를 꾸준히 이어가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용태 감사는 “협회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양질의 회원사들이 많이 유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 기존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광탁 회장은 의견에 공감하며 협회가 전문신문의 발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답했다.

협회 사무국에서는 △협회 연회비 할인제도 △협회 홈페이지 방문 및 활용성 제고 요망 △한국전문신문협회 BAND 가입 요망 △전문언론인

동우회(산우회, 골프) 회원 모집 등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이후 신임 임원진의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신임 이사로 임명된 김성진 NKBS뉴스통신 발행인과 양옥석 중소기업신문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먼저 김성진 신임 이사는 “협회 이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전문신문의 발전을 위해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양옥석 신임 이사는 “그동안 전문신문 업계에 대해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며 “중소기업과 전문신문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8-9면 참고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가입 안내

■회원가입 자격 및 절차

가. 가입자격 : 전문신문(인터넷) 발행인·대표이사 또는 발행법인

나. 가입절차 : 입회원서, 발행인 카드, 회원사 카드(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입회비와 함께 본 협회 사무국에 신청.

다. 회비내역 : 입회비 - 700,000원
월회비 - 90,000원 *연회비로 선납시 5% 할인

라.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9-01-1135-182
(예금주 : 한국전문신문협회)
신한은행 : 100-003-283205
(예금주 : 한국전문신문협회)

■문의 : 한국전문신문협회 사무국 ☎02-334-7251~2

■협회 주요사업

가. 협력업체를 통한 신문 제작, 편집, 인쇄, 발송, 홈페이지 관리 경비 절감

나. 전문신문 육성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다. 전문신문협회보 발행, 배부를 통한 홍보

라. 전문신문편람 제작, 배부를 통한 홍보

마. 정부공익광고·기업광고 수주 및 회원사 배정

바. 기자증 발급 및 취재편의 지원

사. 정기간행물 납본 대행 - 국립중앙도서관

아. 각종 캠페인 및 광고주·유관단체장과의 좌담회 개최

자. 경영인 세미나, 기자연수교육, 강연회 개최

차. 한국전문신문상 및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카. 정기간행물 신규 및 변경등록 대행

타. 전문신문의 이행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가스신문 33기 명예기자 발대식 갖고 본격 활동

가스신문

가스신문의 지역 및 직장 리포터인 제33기 명예기자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가스신문(발행인 양영근)은 지난 1월 17일 본사 회의실에서 제33기 명예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7명의 신입 명예기자가 입단함으로써 명예기자단은 총 110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발대식에는 양영근 발행인, 김한수 단장, 임태원 부단장, 한용훈 사무국장, 권한진 재무국장을 비롯해 신입 명예기자 6명이 참석했다.

양영근 발행인은 “1992년에 처음 만들어진 명예기자단이 올해로 33년을 맞이해 축하하고 새로운 명예기자를 환영한다”며, “소속 직장 및 지역 사회에서 가스업계와 관련된 여러 소식을 알리는 역할과 동시에 가스업계 선·후배들과의 유기적인 만남을 통해 국내 가스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예기자단 김한수 단장은 “가스신문 명예기자의 활동 구호는 관심, 참여, 사랑으로 가스신문사와 명예기자단이 서로를 아끼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바란다”며, “지역 및 직장 리포터로서의 역할은 물론 가스신문 독자위원회 회원으로써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신입 명예기자는 △(주)쿨텍 유규노 대표이사 △한국폴리텍1대학 서울캠퍼스 지능형에너지설비과 어준혁 교수 △범한메카

텍(주) 제작팀 정현철 부장 △(주)파이어독스 김민석 강원본부장 △(주)두산에너지 박종갑 대표 △(주)태성물산 관리부 박광영 과장 △(주)폴리텍 가스영업팀 신윤섭 차장이다.

한편, 이날 가스신문 한상열 편집국장은 신입 명예기자들에게 명예기자의 역할과 취재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으며, 최수연 과장은 명예기자단 밴드 가입 안내와 춘계연수회 및 추계수련회 등 연중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불교문인의 등용문...2025 불교신문 신춘문에 당선자 시상식

불교신문

불교신문(발행인 진우스님)이 ‘2025 불교신문 신춘문에’ 시상식을 지난 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개최했다.

불교신문 발행인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사시조 부문 당선자 최원준 씨와 단편소설 부문 당선자 정유진 씨, 동화 부문 당선자 이연숙 씨에게 당선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상금은 단편소설 부문 500만원, 사시조와 동화 부문은 각각 300만원이다.

불교문인의 등용문인 불교신문 신춘문에는 지난 1964년 시작해 39회를 맞고 있으며 불교문학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신인 문학인을 발굴하는 장에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사시조 1000여 편을 비롯해 동화 100여 편, 단편소설 100여 편, 평론



10여 편 등이 최종 응모했다.

시 ‘산사’로 당선된 최원준 씨는 수상소감으로 “세상이 참으로 시끄럽지만 잡스러운 말이 없는 부처님세계에서 조그마한 울림이라도 듣기 위해 정진하라는 말씀으로 죽비 한 아음을 받겠다”면서 “초보 불자로서, 생활인으로서, 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불교문학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겠다”고 약속했다. 단편소설 ‘목련의 잉태’로 수상한 정유진 씨는 “이제 무거

운 가방을 메고 등산길 초입에 서서 한 걸음 땀 기분”이라며 “걸음걸음, 매 순간 정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화 ‘놀고 싶어서’ 작품으로 당선된 이연숙 씨는 “틈만 나면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더 놀아보라고 활짝 문 열어주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면서 “지금부터 이야기 속에 하나하나 주인공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2025 국가 식품안전 정책 방향’ 제27회 수요포럼 성료

식품음료신문

식품음료신문(발행인 이군호)이 ‘2025 국가 식품안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27회 수요포럼을 지난 1월 22일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올해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비전 공유와 함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현안과 발전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최종동 과장

의 올해 국가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대표,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상욱 본부장 등 고정책널과 함께 한국식품산업협회 법령제도분과 위원들이 참가해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내놓으며 식약처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종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식품안전 주요 업무 정책방향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식품안전관리를 목표로, 세부과

제인 ‘S.U.R.E’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S(Smart)=디지털 전환, U(Upscale)=환경 변화 대응, R(Reasonable)=합리적인 규제, E(Easy)=규제 외교이다.

이어 한국식품산업협회 법령제도분과 위원들은 이물제도, 회수 및 공표 등 행정처분, 수출지원 등 산업계에서 그간 식약처에 개정과 지원을 요청해왔던 제도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했으며, 식약처는 규제 개선 노력을 약속하는 한편 업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젊은 의사, 가능성 다양... 해외진출·창업 등



의학신문

의학신문(발행인 박연준)은 지난 3월 22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제40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25) 세부 세션으로 ‘젊은 의사들의 미래 설계-개원 및 해외진출, 그리고 창업까지-’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4개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첫번째 강연을 맡은 경문배 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는 ‘의대생/전공의들의 미래’ 발표를 통해 정부 의료개혁이 단순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해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는 점을 지적하고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승국 케이닥 대표는 ‘한국 의사 해외진출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조승국 대표는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 등 의료기

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해외 의료 시장이 활성화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인력들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창업 이렇게 준비하라-의사 창업 성공사례’를 발표하면서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자본·투자자와 창업자의 경영마인드 등을 실무 중심으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정성웅 W내과 서울점 대표원장은 ‘개원의 정착’을 주제로 개원가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개원 시 주의점,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원 성공 비법을 공유했다.

컨퍼런스를 들은 한 참석자는 “강의 프로그램에서 확인하고 기대했던 개원 관련 정보를 알기쉬운 강의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개원 뿐 아니라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과 창업에서는 보다 실무적인 고려사항을 알게 된 점도 의미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장사 42.2% 계약·거래시 ESG평가결과 활용, 1년 새 두배로 증가

중소기업뉴스

중소기업뉴스(발행인 김기문)을 발행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견기업 공급망 관리 실태분석’ 결과를 지난 3월 6일 발표했다. 본 분석은 국내 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 현황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분석 결과, 자율공시 기업의 97%가 공급망 ESG 관리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89.2%) 대비 7.8%p 증가한 것으로, 공급망 ESG 관리가 기업의 주요한 지속가능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ESG 평가결과 활용에 있어

서, 계약·거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기업 비중이 전년에 비해 두 배로 증가(22.3% → 42.2%, 19.9%p)했으며, ESG 관련 정책(녹색구매, 분쟁광물 관리, 공정거래 준수 등)을 구매시스템에 공개하고 구매 시 반영하는 기업도 52%에서 78.9%까지 증가했다.

협력사 지원에 있어서는 ESG 내재화를 위한 교육(65.8%)과 컨설팅(51.3%)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ESG 수준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인증 지원(16.6%)과 설비투자 등의 하드웨어적 지원(18.1%)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사 ESG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31.7%)를 적용하는 기업비율이 전년에 비해 많이 증가했지만 페널티 적용 기업도(29.6%)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2025년 시작 위한 ‘정기이사회 및 정기감사’ 진행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광택)는 지난 2월 5일 협회 회의실에서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백용태 감사와 오경섭 감사가 김광택 회장과 사무국 직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감사는 2024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자료를 근거로 사업부문과 회계재정부문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먼저 사업부문과 관련해 △협회 임원진 확충 △직원 채용시 업무 연속성 확보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강구 △협회 행사 준비 만전 △전문신문 대외 인지도 제고 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이어 회계·재정부문과 관련해 △장기 수익사업 발굴 △기장중심 회계 개선 △회계항목 정리 △현금포상 지양 △불용통장 정리 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이 보고사항을 듣고 있다.

이후 협회는 지난 2월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56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31대 임원진 보강의 건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사용 계획 △기타 협회발전에 필요한 의안 등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됐다.

이어 △정기감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미디어국장 등 접촉, 정책

협의 △회원사 변동 상황 △협회비 납부상황 및 재정 등 업무보고도 이뤄졌다.

본 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31대 임원진 보강의 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광택 회장은 앞서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제기된 의견에 따라 현재 공석인 임원진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사 후보로 김성진

NKBS뉴스통신 발행인, 양옥석 중소기업뉴스 편집국장, 조경욱 농업축산신문 발행인, 주동담 시정신문 발행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참석한 임원들은 임명과 관련해 ‘미납회비(해당 회원사만)’와 ‘차기3회 회비’를 완납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임명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협회 대내외 활동 및 전문신문 발전을 위해 조창희 前 문화체육관광부 중무실장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데 전원 동의했다.

이어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사용 계획’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먼저 윤봉한 사무총장은 △‘한국전문신문협회 60년사’ 발간 △‘2025 전문신문 경영인 세미나’ 개최 △정정보도상 규모 확대 추진 △전문언론인 상주제도 도입 △‘전문신문발전추진단’ 구성 △전문신문업의 디지털혁신(DX) 사업 △전문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 등 올해 협

회 추진할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경영인 세미나의 경우 오는 6월 27-28일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한국광고진흥공사(KOBACO) 연수원에서 ‘전문신문의 디지털혁신(가제)’ 주제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2025 예산 사용계획(안)’은 작년과 대비해 91% 수준으로 축소 책정한 예산규모 임을 확인하고 제61차 정기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보고사항에서는 윤봉한 사무총장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문신문의 대정부 사업 확장과 협회 위상 제고에 힘쓰고 있음을 전했다.

한편, 협회는 정기감사 및 이사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들은 제61차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보고, 최종승인받을 예정이다.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신규회원사



- ◆ 제호 : 한국연에스포츠신문
- ◆ 등록번호 : 서울 다10616
- ◆ 발행인 : 박범석(사진)
- ◆ 편집인 : 박범석
- ◆ 회사명 : 한국연에스포츠신문
- ◆ 등록일 : 2009년 09월 09일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143, 3층
- ◆ 대표전화 : 02-923-6864
- ◆ 팩스 : 02-927-3098
- ◆ 홈페이지 : www.koreaes.com



- ◆ 제호 : 뮤즈온에어
- ◆ 등록번호 : 서울 아55754
- ◆ 발행인 : 유수성(사진)
- ◆ 편집인 : 임수진
- ◆ 회사명 : 더뮤즈스튜디오
- ◆ 등록일 : 2014년 12월 19일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 6층 F67
- ◆ 대표전화 : 010-3729-1950
- ◆ 홈페이지 : www.museonair.co.kr

www.kosca.or.kr

전문건설인의 자부심이 활짝!



대한민국 전문건설인의 권익과 경쟁력을 키워 드립니다

‘건설 코리아’의 명성을 완성하는 현장의 최일선에서
우리 전문건설인과 함께해온 **KOSCA(대한전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전문건설인과 함께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새로운 건설문화와 비전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KOSCA(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인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전문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전문건설업 관련 제도개선 및 연구 / 각종 법령정보 제공 / 시공능력평가 및 공사 / 정부수탁사무 처리 / 인장기능사 업무 / 업종별 기술개발지원 / 건설업 통계조사 / 회원사 권익증진 및 고충처리



“대학언론 현주소 점검하고 위기 극복 나선다”

한국대학신문

한국대학신문(발행인 홍준)이 지난 3월 8일 오전 성균관대학교 서울캠퍼스 퇴계인문관에서 열린 ‘2025 대학언론인 콘퍼런스: 연대’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대학알리·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대학신문과 프레스안이 후원했다.

지난해 1월 ‘2024 대학언론인 콘퍼런스:불씨’에 이어 2회차를 맞은 이번 콘퍼런스는 대학언론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김봄이 경기대신문(前) 편집국장과 안치윤 성공회대 미디어센터장이 발제를 맡아 대학언론인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자금 부족 문제, 보도



윤리 구축법 등 대학언론과 연관된 10가지 주제를 다루는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각 테이블에서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학언론인의 역량을 키울 기회를 가졌다.

전문가로는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를 비롯해 김정환 미디어몽

구 대표, 박상혁 프레스안 기자, 김보경 설록 기자, 유근운 뉴스토마토 기자, 장슬기 미디어오늘 기자 등이 참여했다.

3부에서는 대학언론 비전발표회를 통해 기하늘 대학알리 대표와 원지현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의장이 대담에 참여해 대학언론의 미래 방향을 논의했다.

제16대 생활개선중앙회장에게 이진희씨 당선



농촌여성신문



농촌여성신문을 발행하는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제16대 회장으로

이진희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사진)이 당선됐다.

지난 2월 18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오디오리움에서 열린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제16대 임원선거에서 이진희 후보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 제16대 중앙연합회장에 당선됐다.

중앙회장 선거와 함께 진행된 임원선거에서 정책부회장에는 기호2번 김영애 중앙회 운영위원(직전 경기도연합회장), 과제부회장에는 기호2번 박영희 직전 전남도 연합회장이 각각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홍보부회장에는 변옥례 15대 홍보부회장이 단독으로 등록해 연임하게 됐다. 2명의 감사(도 1, 특광역시 1)에는 심명순 직전 전북도연합회장과 김정순 직전 대전광역시연합회장이 각각 단독 출마하며 무투표 당선됐다.

이진희 당선인은 당선소감에서 “생활개선회는 큰 버팀목이자 생활의 활력소였다”며 “다양한 직책에서 많은 현장경험을 쌓은 만큼 이를 토대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전체를 아우르며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비예산 확보를 통해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숙원사업인 농촌여성회관 건립을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면서 “진심 어린 소통과 강력한 실천력으로 대의원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대심도 등 지하 교통터널, 방재기준 재정립 필요”

한국건설신문

한국건설신문(발행인 양기방)이 제7회 스마트건설 세미나를 지난 3월 11일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건설신문이 주최하고 스마트건설교류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지하안전협회가 주관했다.

조성민 스마트건설교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예측과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제1부 스마트건설기술 활용(포스코이앤씨, 에이앤티엔지니어링, 큐클래스), 제2부 스마트 안전(마이다스아이티, 성건엔지니어링, 지유텍), 제3부 스마트건설정책(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하안전협회)으로 진행됐다.

세미나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 좌장 박영수 명지대 교수(전 토목학회장),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센터장, 김대상 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재호 지유텍 대표, 이호 지하안전협회장, 김혜민 법무법인 송천 변호사 등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이호 협회장은 “최근 도로 철도 등 지하화 건설사업에 대해 많은 논의와 함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심도 관련 교통터널에서 사고



가 나면 재난 그 자체”라며 “지하 70~80m까지 내려가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6분 만에 탈출할 수 있겠는가. 방재기준의 재정립이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이지영 센터장은 “첨단 요소기술들이 현장에서 자동으로 연계 분석돼 즉각적으로 안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합안전관리체계의 구축과 공유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혜민 변호사는 “지하공간의 예측하기 어려운 지질적 요인이나 지반분석 오류, 설계 및 시방 오류, 터널 붕괴나 지반침하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배상, 민사손해배상, 중대재해 및 형사책임, 보험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BIM·AI·드론·로봇·자율주행 등 스마트 기술이 도입되면서 법적 책임과 규제 측면에서도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며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촉진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기존 법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40대 임원진 출범 ... 신경림 회장 선출

간호사신문



제40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으로 신경림(현)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이 당선됐다. 이에 따라 제1부회장에는 박인숙 전 서울대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간호부장, 제2부회장에는 이태화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가 확정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제9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2월 26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고 앞으로 2년(2025~2026년) 동안 대한간호협회를 이끌어 갈 신경림 회장과 함께 이사 8명과 감사 2명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대한간호협회 임원 및 대의원



397명 중 36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가 시작됐다. 총회 의사록 공증을 위해 변호사가 배석했으며, 일반회원들이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자계수기가 처음으로 도입돼 회의 진행과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됐다. 단, 임원선거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원선거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 류말숙 위원장과 위원들, 회장 후보측 참관인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표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 류말숙 위원장이 발표했으며, 회장으로 기호 1번 신경림(현)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대의원 총투표수 371표 가운데 258표(득표율 69.5%)를 얻었다.

이에 따라 러닝메이트로 나선 박인숙 전 서울대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간호부장이 제1부회장으로, 이태화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가 제2부회장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언론조정사건 3,937건, 피해구제율 72.5%

2024년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성수, 이하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은 3,93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2.5%가 피해 구제되어 2023년(74.1%)에 이어 70% 이상의 높은 피해구제율을 나타냈다.

반면에 조정사건 평균처리기간은 상당히 늘어났다. 언론중재법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14일 이내에 조정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 조정사건 평균처리기간은 25.7일로 법정처리 시한보다 1.8배 이상 소요됐으며, 이는 전년(21.5일) 대비 4.2일이 늘어난 수치이다.

위원회는 “조정사건의 꾸준한 증가로 법정기간 내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연간 접수되는 조정사건

의 80%가 서울과 경기중재부에 집중되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사건을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1,452건(36.9%), 취하 1,308건(33.2%), 조정불성립결정 649건(16.5%), 기각 336건(8.5%), 직권조정결정 154건(3.9%), 각하 38건(1.0%) 순이었다.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2,537건, 인터넷뉴스서비스 473건, 뉴스통신 176건으로 인터넷 기반 매체가 80.9%를 차지했으며, 신문 376건(9.6%), 방송 317건(8.1%) 등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조정신청 사건 중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와 관련된 사건은 266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직접신청(피해자가 언론사 유튜브 등 채널을 직접 조정대상매체로 특정한 경우) 사건이 43건, 부가신청(피해자가 방송 등 본 매체에 대해 조정신청하면서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등 채널에 대해서도 함께 조치를 요구한 경우) 사건이 223건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최근 3년간 동영상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 중 부가신청 사건은 감소한 반면, 직접신청 사건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조정대상 매체로 인식하는 신청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 개선 협의체’ 출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3월 19일(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 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하고, 용호성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챗지피티(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콘텐츠 창작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학습데이터 무단 이용, 인공지능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등 저작권 보호 관점에서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민관합동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운영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협의체를 학습 분과와 산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저작물의 학습데이터 활용과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저작권 침해 대응 등 광범위한 저작권 관련 쟁점들을 논의했다. 그 결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 합의가 필요한 중점 현안을 도출했다. 이중 인공지능 산출물을 활용한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에 대해서는 관련 안내서를 제작하여 올해 상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협의체는 추가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제도와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인공지능(AI) 산출물 활용’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한다.

사정보 채널을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22.8%에 그쳤다.

한편 소셜미디어 상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 출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는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미디어에서 접한 뉴스 제공 언론사가 어디인지 안다는 응답은 34.7%,

모른다는 응답은 31.6%로 비슷했고,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명을 확인하는 응답자는 22.5%로, 확인하지 않는 응답자(45.4%)의 절반 수준이었다. 출처 언론사를 알거나 확인하는 정도는 70세 이상의 경우 특히 낮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아졌다.

1인당 4개 넘는 소셜미디어 써도… ‘국민 소셜미디어’는 여전히 카톡·유튜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하 재단)이 ‘2024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평균 4.25개의 소셜미디어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이용률이 98.9%로 가장 높고, 유튜브(84.9%), 인스타그램(38.6%), 밴드(28.6%), 네이버 블로그(21.7%)가 뒤를 이었다.

소셜미디어 이용 행태에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용 중인 소셜미디어 개수가 많았고, 세대별로 이용하는 서비스도 달랐다. 2030 세대에서는 인스타그램(20대 80.9%, 30대 70.7%)이 3위를 차지한 가운데, 5060 세대에서는 밴드가 이용률 3위(50대



40.6%, 60대 31.1%)로 나타났고, 40대 이하 세대에서는 이용률이 낮은 카카오톡이 상위 10개 서비스에 이름을 올렸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시사정보를 이용한 적 있다는 응답은 35.9%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유튜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월 1회 이상 뉴스/시사정보를 이용하는 응답자(n=1,050)들은 주로 개인이나 단체의 시사채널(63.6%, 3순위 응답 기준), 신문사/방송사의 공식 채널(63.0%, 3순위 응답 기준)을 통해 뉴스/시사정보를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가 언론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65.1%). 많은 이용자들이 언론사의 공식 계정(87.4%)이나 전현직 언론인의 시사채널(63.5%)을 언론이라 생각했고, 개인 유튜브/Blog가 운영하는 시

‘2025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150명 활동 시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난 2월 2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2025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기자단의 활동 시작을 알렸다.

2008년에 출범해 올해 18기를 맞이한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은 국민의 시선으로 정부 정책에 접근하여 정책이 생활 속에 스며드는 과정을 기사화해 알리는 국민기자단이다. 정책에 관심이 많고, 기사 작성과 콘텐츠 제작 능력이 우수한 일반인

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총 1,083명이 지원해 7.2:1이라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글 기자 70명, 누리소통망(SNS) 기자 60명, 영상 기자 20명 등 최종 150명이 선발됐다. 기자단은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정책을 소재로 한 다양한 기사와 콘텐츠를 제작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과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공식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지난해 우수한 활동을 보여준 기자를 시상하고 신임 기자단 위촉장 수여와 격려, 정책홍보 기획 및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했다.

정책기자단으로 선발된 박현민 씨는 “영상 기자로 선발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3남매 아빠로서 저출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영상에 담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체부 유병채 국민소통실장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은 일상에서 직접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들을 체험하고 이를 가감 없이 국민에게 알리는 국민기자단으로서 정책이 필

요한 국민들이 더욱 쉽게 정책에 닿을 수 있게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정책기자단의 활동이 국민의 생활과 정책을 빈틈없이 연결하는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단독 |

중구, 남산 불법 웨딩홀 ‘봐주기 의혹’

중구(구청장 김길성) 남산자락에 위치한 가설건축물이 불법 용도 변경해, 수년간 예식장 및 행사장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중구청이 미온한 행정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구청이 해당 건물이 불법 용도 변경해 영업하고 있다는 걸 최초 인지한 시점은 2023년 하반기. 중구청은 2024년 상반기에 사전예고, 시정 촉구 등 행정조치를 취했고, 2024년 9우리 5일 해당 업체로부터 ‘예식장 관련 장비 철거 및 예식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출받았다. 중구청은 9월 13일 ‘금요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9월 23일 시정 완료 처리했다.

법적인 절차에서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예식이 주로 열리는 주말이 아닌 ‘평일’에 현장 확인을 한 점이 의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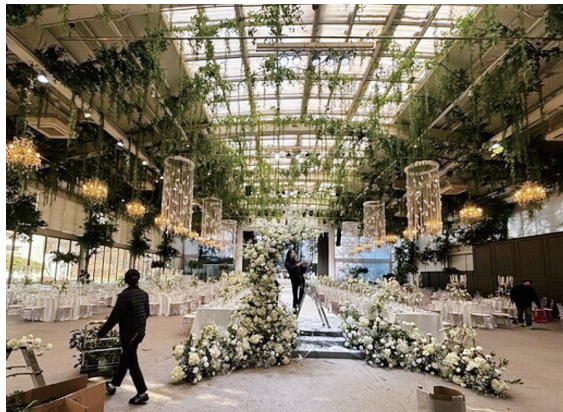
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가지는 않는다”며 “시정 완료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업체에서 시정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뜻이므로, 굳이 주말까지 현장에 나가 확인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시정일보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시정조치 오나료 처리된 이후 10월에도 꾸준히 영업을 이어왔으며, 해당 업체의 SNS를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가설건축물로 일시적 사용 허가를 받은 해당 건물이 건축법뿐만 아니라 소방법 적용 및 소방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400여명을 동시 수용 가능한 예식장 본식홀에는 별도의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피난구유도등, 대피로 안내 등 일체의 소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주례석 양쪽으로 소화기가 단 2대 비치돼 있었다.

해당 건물 천장엔 열에 취약한 PVC 재질이 사용됐으며, 건물 내부엔 화기에 취약한 플라스틱 조화가 가득했고, 예식장 바닥에 깔린 카펫 역시 방염제로 보이지 않았다. 또한, 주 출입구를 제외하고 별도의 비상구는 없었으며, 예식홀과 연결돼 창



고처럼 보이는 공간에는 적치물이 난잡하게 비치돼,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요소가 산재했다.

예식장은 현행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며, 근린생활시설보다 더 엄격한 소방설비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건물은 건축법 및 소방법 적용이 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가설전람회장’으로 2011년 신고 및 사용 허가를 받았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2025년 2월 11일 해당 건물을 현장 방문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상임위 위원들은 영구적인 건축물과 달리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행부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했고, 중구청 건축과는 의회 현장 방문 당시 중부소방서에 특별예방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부소방서 취재 결과, 소방서는 중구청으로부터 점검 요청은 받았으나 현장에 출동해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중부소방서 예방과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이다”며 “건축물도지대장도 없

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소방 점검을 하고 소방 시설 등을 적용하게 되면 소방법으로 승인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갈 수 없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건축법 및 소방법 기준을 피해 있는 해당 업체는 소방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교육 등도 업체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소 허가 없이 돈을 받고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제일 확실하게 화재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건물 자체가 철거해야 한다”면서 “구청 관계자, 구의원이 현장 확인을 했으니 후속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준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으로 명시했다.

2011년 가설전람회장으로 신고한 해당 건물이 어떤 목적으로 연장 신청을 했고, 구청은 어떤 사유로 14년이나 사용 연장을 허가했는지에 대한 의혹 또한 제기됐다.

현재 중구청 건축과는 2월 초 해당 업체에 사전처분통보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기자가 지난 주 현장에 방문했을 시 해당 건물은 주말 예식 준비에 한창이었으며, 2026년 상반기 웨딩 상담 예약을 받고 있었다.

탁상에서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를 느긋하게 밟는 동안, 예식 과정에서 사용하는 촛불과 수많은 조명 장비 사용 등 언제라도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수백 명의 안전이 위태롭게 노출돼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할 때는 지났다. 중구청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차단하고, 건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해 관리하는 등 확실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할 행정청의 안일한 대처가 아쉬운 시점이다.

기사제공: 시정신문(2월 27일) 진주영 기자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국내 연수 협찬금 ‘논란’

전남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내 연수 과정에서 집행부 실과로부터 여행경비 협찬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협찬금은 각 실과에서 10만 원씩 거출해 총 100만 원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의원들의 비교견학 일정 중 입장료 및 식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협찬금이 추가경정예산 심사 일정과 맞물려 지급된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특히 이번 일정이 목포시의회 임사회를 앞두고 진행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만약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법적 처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복위 비교 견학은 정의당 최현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도수 박창수 박용준 최유란 의원이 참여했고 박용식 정재훈 의원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기복위의 공식 비교견학 일정에는 관광지(벽화마을, 케이블카, 외도 보타니아 등) 방문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관광성 외유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목포시의 한 간부 공무원은 “이번 논란에 관련한 바 없다”며 협찬금 제공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최현주 위원장은 “협찬금을 받은지 몰랐고 관행에 따른 것”

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논란이 확산될 경우,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가 진행될 경우 금품 제공 경위, 사용처, 대가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비교견학 협찬금 논란 사과

전남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국내 비교견학 당시 협찬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뉴스투데이의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비교견학 협찬금 논란’ 보도와 관련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고흥 국립소록도병원과 통영 거제 지역 벽화마을, 외도 등을 방문하는 2박 3일간의 국내 비교견학을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관련 부서로부터 협찬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비교견학에는 정의당 최현주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창수, 이도수, 박용준, 최유란 의원과 시의회 사무국 직원 6명이 참여했다.

최현주 위원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협찬금 수령 사실을 알게 됐다”며 “출장여비 외 추가 비용은 참여자들이 각출해 정산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협찬금은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협찬금 수령을 인지했다는 점과 반한 지시를 내린 방식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경찰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의 협찬금 수수 경위와 사용처,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제공: 이뉴스투데이(3월 6일) 김성문 기자

| 현장·단독 |

해외 브랜드 빌려 쓰던 나라에서, 이제 글로벌 IP 사들이는 나라

최근 한국 패션기업들이 글로벌 브랜드의 IP(지식재산권)를 인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글로벌 본사 지분을 100% 인수하거나, 아시아 또는 한국 등 지역별 IP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어패럴뉴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이후로만 굵직하게 11건의 인수가 이뤄졌다. 이중 글로벌 본사를 통째로 인수한 것이 8건으로 IP 인수에 있어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본사 인수 사례로는 아이더, 수프라, 콜롬보, 티톤브로스, 세르지오 타키니, 하이드로젠, 데우스 엑스 마키나, 락피쉬, 홀루바 등으로, 이중 아이더는 2009년 한국 IP 인수에 이어 2020년 글로벌 IP를 인수했고, 콜롬보는 2011년 삼성물산이 인수한 이후 2021년 SG세계물산이 다시 인수했다.

여기에 '수퍼드라이'도 해외 사업의 핵심인 아시아 지역 IP를 인수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글로벌 사업권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례다. 인수 금액도 미화 5천만 달러로 상당한 규모다.

이처럼 한국 패션기업들이 글로벌 IP 인수에 관심을 높이는 이유는 우선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사업권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브랜드 사업은 대부분이 수입 유통을 하거나 3년, 5년, 10년 등의 단위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는 언제든 본사 결정에 따라 파트너사가 바뀔 수도 있으며, 본사가 직접 진출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따른다. 특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 전개사 입장에서 그 공백을 당장 메꾸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한 리스크로 다가온다. 실제 국내 패션 업계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수차

레 경험했다. 가장 근래에는 '뉴발란스'와 '캘러웨이 어패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뉴발란스' 미국 본사는 최근 이랜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하면서 2027년 직접 진출 의사를 밝혔다. 직접 진출 이후 이랜드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랜드 입장에는 '뉴발란스'의 뒤를 이을 사업 모델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뉴발란스'는 지난해 연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이랜드의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캘러웨이 어패럴'은 2021년 7월부터 직접 진출로 전환했다. 기 전개사인 한성에프아이는 '캘러웨이 어패럴' 사업으로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왔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테일러 메이드 어패럴'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캘러웨이 어패럴' 사업 수준까지는 끌어올리지 못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감안할 때, 국내 패션업체들은 IP 확보에 더욱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 세계 시장이 오픈되면서 빠르게 글로벌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강력한 헤리티지와 인지도를 확보한 글로벌 IP 인수를 통해 세계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의지다.

물론 과거에도 IP 인수는 꾸준히 이뤄졌다. 1995년 '글로벌 버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3개(뷰티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중에서 '할라'는 성공적인 케이스로 꼽힌다. '할라' 제품을 국내에 수입 유통하던 윤운수 회장은 미국 투자 전문 펀드사, 할라USA와 함께 2003년 이탈리아 본사를 인수했고, 이후 2007년 할라코리아가 지분 전체를 인수했다. 전 세계 매체들은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1년에는 골프용품 '타이틀리스트'와 '풋조이'를 운영 중인 아쿠슈네트 미국 본사를 인수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국내 패션 업계에서는 이제 할라와 같이 성공적으로 IP를 확보하고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F&F, 더네이쳐홀딩스, 케이투그룹 등 오프 중심의 중견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중에서도 F&F는 IP 인수에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18년 '듀베티카'를 시작으로 2020년 '수프라', 2022년 '세르지오 타키니' 등을 차례로 인수했다. 그리고 타이틀리스트, 캘러웨이와 함께 세계 3대 골프용품으로 꼽히는 '테일러메이드'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다.

더네이쳐홀딩스도 해외 기업 인수를 위해 작년 3월 자회사 다이엠홀딩스를 설립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기사제공: 어패럴뉴스(2월 27일) 오경천 기자

‘알바 구인난’과 ‘알바 구직난’의 역설: 자영업자와 청년들의 상충되는 이해관계

최근 자영업자들은 “손님보다 알바 구하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한다. 인건비 부담과 근무 조건 문제로 인해 구인 공고를 올려도 지원자가 적다고 한다. 반대로 청년들은 “알바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토로한다. 원하는 근무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일부 업장은 낮은 임금이나 피크 타임에만 구인하여 짧은 시간의 근무만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주휴수당 지급과 근무시간 문제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영업자들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다.

▷자영업자의 딜레마=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제한하는 ‘쪼개기 알바’나, 알바생을 일찍 조기퇴근 시켜 인건비를 줄이는 ‘유령 근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피시방 점주 정씨(26)는 인터뷰를 통해 “평일 알바생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만, 주말 근무자는 파트를 나눠 주휴수당 지급을 피한다”고 말했다. 또한, 편의점 점주 강씨(63)도 “주 2일 근무제와 7시간 근무로 모든 알바생의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즉, ‘일손은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의 사람은 두고 싶지 않은 최소 인건비와 최대 효율 사이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대로 20대 청년들은 ‘알바 구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청년들의 생각을 직접 물어보았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청년들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선호한다. 대학생 이씨(23)는 “피크 타임 두세 시간 일해서 버는 것으로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쪼개기 알바에 고용된 경우 투잡을 뛰는 경



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쪼개기 알바의 역설=대학생 강씨(23)는 “시간을 너무 쪼개서 공고를 올리니까, 원하는 근무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것 같아요”라고 언급했다. 이는 인건비를 절감하려 하는 자영업자들의 전략이 역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쪼개기 알바의 경우 주15시간 미만 근무로 인해 ‘주휴수당’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알바 구직을 하는 대다수의 청년들이 알바를 구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이 좋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알바를 구직 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유령 근무제’이다.

▷유령 근무제(조기 퇴근)=유령 근무제란 원래 약속된 근무시간이 있지만, 알바생이 갑자기 사라지는 모습을 풍자한 표현이다. 업주가 매출 감소, 인건비 절감 등과 같은 요인으로 근로계약서 상 약속된 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바생을 퇴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 김씨(22)는 인터뷰에서 “홀서빙 알바 할 때였는데 사장님께서 손님이 없다고 출근한

지 한 시간만에 퇴근시키더라고요. 한 번 쯤이면 이해하겠는데, 매번 그렇게 하시니까 그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이러시는 거구나... 이럴 거면 아예 필요할 때만 부르시지 왜...”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설문에 참여한 100명 중 59명이 ‘유령 근무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에게 물어보았다. 설문 결과는 첫째, 취업 준비나 학업 때문에 시간이 없다 (28%) , 둘째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워 실질 월급이 적다 (22%) , 셋째,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일만 남아있다 (14%)였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된 요인은, ‘학업과 취업 준비, 주휴수당 미지급’이었다.

▷상충되는 이해관계=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절감 노력과 청년들의 경제적 필요가 맞물려 ‘알바 구인난’과 ‘알바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의 구인, 구직 불균형은 코로나19 이후의 영향과 고물가 여파에 기인한다. 부대비용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인건비를 최소화 하여 손실을 줄이려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대에 있는 일식당 점주 차씨(44)는 “피크타임에만 구인해서 쓰는 게 점주 입장에서선 마음 편하죠. 점심과 저녁 두 타임으로 나눠서 알바생을 구했는데, 글썽 피크타임 세시간만 구하니까 지원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알바생 한 명이 두 타임을 모두 하고 있어요”라며 한숨을 지었다.

▷해결책 모색=전문가들은 주휴수당을 개선해 알바생들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임금이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알바생들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한국연예스포츠신문(2월 1일) 서아연 기자

기획 주간전문신문 Focus In 제61차 정기총회 및 2025 주요사업·일정

한국전문신문협회 2025년 ‘전문신문 혁신의 해’ 선포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밝아오며 한국전문신문협회(이하 협회)가 창립 61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협회는 올해를 ‘전문신문 혁신의 해’로 삼고 전문신문의 발전과 위상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월 20일에 개최된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준비가 시작됐다. 지난 제61차 정기총회 보고사항과 의결안건을 중심으로 2025년 협회 주요 사업과 일정에 대해 살펴봤다. /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 개회사 | 김광탁 회장

사업 다각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존경하는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 뱀의 서기가 지배한다는 을사년을 맞아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늦었지만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서 전문신문협회 제61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2024년은 전문신문협회가 커다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가 새로 부임하면서 사무국 직제와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내외에서 다소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취했던 이 조치가 최선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차선책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백용태·오경섭 두 분 감사께서 2024년도 사업과 예산에 대한 감사 강령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무국 구조조정에 따라 업무적 불연속성과 전문성 결여라는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어느 해 보다 협회 사무국에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며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막혔던 한일 전문신문협회 세미나가 재개되었고, △편람 제작과 제60주년 전문신문의 날 행사도 무리없이 마쳤습니다. 특히, 지난해 협회는 회원사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사업 건실화를 도모하고 재정 건전화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2025년이 더욱 발전되고 성숙된 전문신문협회를 약속하는 양질의 토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는 모든 회원사의 적극적이고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한일 경주 행사에 적극 참여해 준 임원사와 회원사 대표님들, △전문신문의 날 행사를 위해 큰 액수를 찬조해 주신 보건신문과

약업신문, 일요저널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편람 제작 시에 광고로 협찬해 주신 18개 회원사 대표님들께도 감사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성심성의껏 협회의 발전과 전문신문업계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 주시는 모든 회원사 대표님과 임직원들께도 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문신문협회 회원 여러분,

오늘날 전문신문을 둘러싼 사회적 여건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녹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갈등과 사회계간 대립이 전문신문의 미래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변화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정신 줄 놓는 순간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문신문 종사자 여러분의 인식 있는 각성과 뼈 깎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전문신문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 회원사들간 업무 협력과 정보공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회원여러분!

협회는 금년 2025년을 ‘전문신문 혁신의 해’로 설정하고 사업 다각화와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유관기관 등과 업무 유대를 강화해서 회원사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회원사 간 친목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시대에 걸맞는 미래형 전문미디어 세계를 열어보자는 우리의 희망과 바람을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가 가장 필수적입니다. 늘 해 오신 대로 금년 한해에도 협회의 발전과 번성을 위해 변함없는 비판과 지지를 함께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사업 번성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문신문 발전 및 위상제고 위한 대내외적 활동

2025년 전문신문 현안과제 해결= 협회는 전문신문의 대정부 사업 확장과 협회 위상 제고를 위한 사업을 선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전문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신문법 개정 또는 전문신문발전법 제정을 재추진 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미디어 디지털화 및 디지털혁신(DX) 사업 추진 △언론재단 기금을 활용하는 우수콘텐츠 발굴 추진 △전문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 △정부 유료광고 수주 △장기저리자금 지원 등 회원사 후생복지 증진방안 강구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협회는 조창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주무부처와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 협회는 올해 ‘한국전문신문협회 60년사’를 발간해 그동안 전문신문이 쌓아온 역사를 기록해 배포할 예정이다.

일본전문신문협회 교류 통한 국제활동 강화= 협회는 코로나 종식 선언에 따라 얼어붙은 국제교류 활동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2022년부터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했던 한·일 합동세미나를 ‘전문신문 미래전략’ 주제로 작년 5월 31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문신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그동안 협회는 일본전문신문협회와 1991년부터 지금까지 양국의 전문신문에 대한 정보 교류와 친목을 다져왔다.

이후 2000년을 기점으로 더 발전된 교류를 위해 한·일 합동연수회(이하 합동연수회)를 개최해 양국의 전문 언론 산업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폭 넓은 관계를 이어갔다. 합동연수회는 5주년에 양국 협회가 각 1회씩 주기를 두고 개최해왔다.

이와 함께 양국 협회는 매년 10월 일본협회에서 주최하는 ‘일본전문신문대회’, 11월 한국협회에서 주최하는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에 임원진을 초청해 자리를 빛내며 국제적 위상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역시 양국 협회 간 초청 의사를 전할 계획이다.

한국전문신문협회 2025년 주요일정(예상)

월	일정
2월	정기총회 - 협회 모든 회원이 참석하여 2024년 결산 및 2025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 승인, 신임 임원진 임명식 등 총회 개최
3월	임원 간담회 -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 임원 간의 친목 도모 전문언론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계기를 마련
6월	경영인 세미나 - 전문신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며 각 산업별 경영진 간 소통의 장을 통한 새로운 경영마인드 창출
7~9월	전문신문 기자연수 - 전문기자의 육성과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언론진흥재단에 위탁교육을 실시
10~11월	국제교류 - 10월~11월 각 1회씩 한·일 양국협회의 기념식 행사 참석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와 양국 전문신문의 정보교류는 물론 각국의 전문신문 공동발전과 현안문제 논의 세계전문협회설립의 단초를 마련
11월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 11월 21일, 창립 61주년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전문신문에 대한 홍보와 전문언론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부포상 및 한국전문신문상 시상식 개최

기존 사업 운영을 통한 내실화 제고= 협회는 회원사를 비롯한 전문신문의 발전을 위해 기존 사업들을 충실히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전문 언론의 발전과 비전 모색하기 위한 ‘전문신문 경영인 세미나’를 오는 6월 27~28일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한국광고진흥공사(KOBACO) 연수원에서 ‘전문신문의 디지털혁신(가제)’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전문신문 기자연수’를 오는 7~9월 중에 진행할 계획이다. 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연수팀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전문신문 기자연수는 전문신문 언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문기자로서의 소양과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1~2022년은 온라인 연수로 진행됐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대면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기자증 발급 및 취재편의 지원 △전문신문 편람 및 협회보 발행 △정기간행물 납본 업무 대행 △특별 분과위원회 운영(뉴미디어진흥위원회, 중소기업발전위원회, 미래비전위원회 등) △전문언론인 좌담회 개최 등을 실시한다.

우수기사상 재정을 통한 뉴스콘텐츠 발굴= 협회는 ‘정부포상’ ‘동암언론상’ ‘한국전문신문상’에 이어 제59차 정기총회를 통해 ‘우수기사상’을 재정했다. 이 상은 전문신문 매체에서 발굴해 낸 특종 기사를 비롯한 우수 기획·특집 연재 기사를 선정해 심층보도 활성화와 양질의 뉴스콘텐츠 취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심사기준은 △기획기사(독창성) △파급 및 영향력 △공감성 △문장력 등이다.

이에 2023년 7월에 제1회, 2024년 11월에 제2회 우수기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기사로 선정된 기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전문신문협회보를 통해 해당 기사를 홍보하고 있다.

먼저 제1회 우수기사로 △30년 이상 장기사용공급설비 교체사



제61차 정기총회 전경



모든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협회 백용태 감사(사진 왼쪽)와 오경섭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고 있다.



협회 김광택 회장이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신임 임원으로 임명된 김성진 이사(사진 왼쪽)와 양옥석 이사가 인사를 전하고 있다.

업 해법은(가스신문 주병국 기자) △코로나 속 등장 스마트병원 환자 중심으로 확산(의학신문 이승덕 기자) 등 2건이 선정됐다.

이어 제2회 우수기사로는 △여성농업인 디지털 정보화 활동도 76.5%(농촌여성신문 이금미 취재부장) △미래차發 구조조정 시작…1년새 1차 협력 중소기업 8.4% 사라졌다(중소기업뉴스 이권진 기자) △사업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둘러야(정보통신신문 서유덕 기자) 등 3건이 선정됐다.

협회는 올해도 우수기사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세부사항 논의 후 분기별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언론 발전에 공헌한 전문언론인을 발굴 및 포상하기 위해 제정된 '정부포상 및 한국전문신문상 시상식'은 1995년 이전까지 신문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그러나 1995년 10월 24일 '제1회 전문신문의 날'이 개최되며 시상식 역시 함께 열렸다. 또한 동암언론상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을 주도한 故 함승기 회장(약업신문 창업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8년 제정됐으며, 약업신문이 후원하고 있다.

◇회원 간 정보교류 및 소통 창구 역할

협회 공식홈페이지 새롭게 오픈= 협회는 기존 운영해오던 전문신문 뉴스포털사이트 스페셜뉴스를 대신해 공식홈페이지(www.kopma.kr)를 작년 9월에 오픈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작에 반영했다.

이번 홈페이지는 방문자들에게 협회와 전문신문을 소개함은 물론 각 분야별 소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회소개 △회원사 △협회활동 △자료실 △참여마당 등으로 카테고리를 구성했다.

더불어 회원사의 소식을 전달하며 전문언론 홍보를 위한 가교 역할에 힘쓸 계획이다. 이에 공지사항과 각종 자료실을 통해 협회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회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체 홍보 및 우수기사를 소개하고 싶은 회원사의 경우 사무국으로 전화(02-334-7251)또는 메일(kosna1964@naver.com)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국전문신문협회 네이버 밴드 운영= 협회는 '(사)한국전문신문협회' 네이버 밴드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협회와 회원

사 간 원활한 커뮤니티를 위한 열린 광장으로 정보교류는 물론 친목도모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개설했다.

밴드 참여는 각 회원사(정회원)마다 2인으로 한정하며, 대표이사 및 발행인 또는 편집인과 편집국장 중에서 가능하다.

더불어 협회장이 협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도 참여 가능하다. 모든 참가자의 닉네임은 매체명과 실명으로 표기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또한 게재금지 사항으로는 △지나치게 가학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 음란한 내용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여 논란이 야기되는 내용 △회원사 상호간 비방 행위, 도를 넘는 근거 없는 비판 등 △기타 협회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의 단합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사는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문신문 동호회 운영= 협회는 스트레스와 격무에 지치기 쉬운 전문언론인들의 건강증진과 친목에 기여하고자 '전문신문산우회'와 '전문신문골프동우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동우회 참여는 회원사 발행인·대표이사·임원 등 관계자면 가능하다.

현재 산우회는 그동안 '전문신문 걷기대회' 등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올해도 '전문신문신문인 트래킹'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골프동우회 역시 회원 간 스케줄을 맞춰 정기라운딩을 실시하며, 매년 연말에 협회 회장배 '전문신문 골프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협회 사무국에서는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문신문 홍보 캠페인 진행

'왜? 전문신문에 광고해야 하는가?'= 협회는 전문신문 홍보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지난 제215차 정기이사회에서 '전문신문 홍보 공동 캠페인' 안건 의결에 따른 것이다.

캠페인 의결 당시 양영근 회장은 "전문신문에 광고를 하는 효과에 대한 10가지 논리를 앞세워 광고 문안을 생각해봤다"며 "이를 캠페인으로 회원사 모두가 함께 진행하면 전문신문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회원사의 위상이 높아져 비회원사와도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신문 홍보 캠페인을 위한 광고는 '왜? 전문신문에 광고해야 하는가?' 주제로 5단 및 전면 광고 각 2종류씩 총 4종으로 선보이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해당 광고파일을 협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활용하면 된다. 캠페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왜? 전문신문에 광고해야 하는가? 〉

1. 전문신문은 지면 허비가 적기 때문에 타 매체와의 비교해서 광고비용이 싼 효율적인 매체이다.
2. 전문신문의 광고는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시장이 명확하다. 광고 목표에 도달하기 쉽기 때문에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3. 전문신문은 독자의 목적의식과 강하게 밀착되어, 전문사항에 대하여 높은 안목을 갖고 편집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
4. 일반신문, 뉴미디어의 정보량 범람의 시대에 독자는 정보에 대해 방어적, 선택적 경향이 강해져 전문신문을 더 신뢰하게 된다.
5. 전문신문은 일반신문과 같이 계절이나 요일에 의한 부수의 변동이나 신문구독자의 변동에 따른 불안정이 없다.
6. 전문신문은 일간지와 달리 한번 보고 버리는 신문이 아니라 오래 보전됨으로써 광고의 생명이 길다.
7. 전문신문의 기사면은 비교적 시각효과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면에 상대적으로 주의집중효과를 크게 받을 수 있다.
8. 독자의 관심이 높은 기사와 병행해서 게재되는 전문신문 광고는 광고의 충격이 높다. 따라서 광고주가 자사 상품이나 기업 이미지에 알맞은 전문신문을 선택하면 매우 효과적인 광고가 가능하다.
9. 전문신문 광고시점에 이벤트, 기획행사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유통경로에 쉽게 접근하면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10. 특히 한국전문신문협회에 가입된 전문신문은 그 품격이 검증된 만큼, 안심하고 광고를 의뢰할 수 있는 좋은 매체이다.

캠페인과 관련해 협회 사무국은 "전문신문 홍보를 위한 캠페인에 보다 많은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독교신문 창간 60주년 특집] 기자들이 선정한 역대 최고의 기사

한국교회 건강한 변화 불러온 60년의 기록

기독교신문은 지금껏 모두 2472번 신문을 발행했다. 지난 60년간 매주 지면을 통해 독자들과 만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온라인으로도 매일 기사를 내보냈다. 때로는 교단 안팎에 큰 반향을 일으킨 내용도 있었고, 총회와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데 이바지한 기사도 많았다. 그중에서도 제일 영향력을 발휘한 기사는 무엇일지, 편집국 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꼽았다. 그 결과 보도 부문은 2013년 기독교신문이 탐사 보도한 '전국 신천지 위장교회 67곳 드러났다'(1925호)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기획 부문에선 2015년 미자립교회 살리기 특별기획 '한국교회 새강을 살리자'(2012~2034호)가 선정됐다. 두 기사 모두 연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정 올해의 기사상 대상을 받으며, 그해 기독교언론을 통해 생산된 기사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해당 기사들을 소개하며, 당시 기획과 취재에 참여한 기자들을 통해 뒷이야기를 들어본다.

'신천지 위장교회' 탐사보도, 교단 안팎 큰 반향

신천지는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후 실제

가 속속 드러나면서 지금은 전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10여년 전만 해도 교회들조차 신천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 대책 마련도 소극적이었고, 대응 역시 개별적으로만 이뤄졌다.

이때 기독교신문이 전국에 분포한 신천지 위장교회 명단을 폭로하면서, 총회를 넘어 교계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꾸려진 특별취재팀은 이단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약 1개월 동안 탐사취재를 진행했고, 처음으로 신천지 위장교회 67곳을 밝혀냈다.

보도 이후 비로소 신천지의 위험성을 실감한 한국교회는 이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지역별로 공동대책을 논의했고, 대응 방식에도 소극적 방어에서 적극적 공세로 전환하는 등 변화를 가져갔다.

그렇다면 해당 보도는 어떻게 처음 시작됐을까? 기독교신문은 기존 이단 취재 과정에서 유대관계를 맺은 신천지 대책전국연합 신현욱 대표(현 구리이단상담소장)로부터 관련 소식을 접했다. 신천지가 핵심 포교전략으로 '위장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였다. 특별히 그들이 주로 노리는 대상이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개척

교회 목회자라는 사실을 파악한 기독교신문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 위장교회 색출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특별취재팀을 구성, 본격적인 취재에 돌입했다.

먼저 각 지역에서 신천지 대응 사역을 전개하는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의회 산하 이단상담소와 교회연합회를 통해 사전 조사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를 탈퇴한 회심 성도들의 도움이 컸다. 자신들이 미리 파악하고 있던 각 지역 위장교회를 돌아다니며 재확인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후 특별취재팀이 불시에 현장을 급습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지원한 것이다. 철저한 준비를 마친 뒤 이어진 현장 탐문은 발 빠르게 진행됐다. 전국적인 정보망을 구축한 신천지의 대응을 제하기 위해서였다.

기자들은 서울과 인천, 수원 등 수도권권을 시작으로 청주와 대전 등 충청과 전주와 광주 등 호남, 부산, 대구 등 영남까지 전국을 일주일 만에 돌며 위장교회를 색출해 냈다. 위장교회 관계자들은 몸싸움을 벌이며 거세게 맞섰지만, 위험을 무릅쓴 기자들의 용기 있는 취재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을 비롯한 정통 교단의 명칭과 로고를 사



창하고 증명서까지 위조하며 포교 활동을 벌여온 그들의 정체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기독교신문은 르포 형식의 기사뿐 아니라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위장교회 명단과 위치를 한국교회에 조건 없이 배포했다.

특별취재팀으로 함께 뒀던 박민균, 송상원 기자는 입을 모아 "몸으로 직접 부딪치며 탐사 취재한 한 달여 과정은 분명 고됐지만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총회와 한국교회의 관심과 변화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보람찬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했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아쉬움을 이야기했다.

그 이후에도 신천지는 생존을 위해 포교 방식은 물론 조직 체계도 변화무쌍하게 바뀌가면서 진화하는 동안, 교회는 여전히 뒤따라가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에 미혹돼 청춘과 삶을 잃은 신도들과 그 폐해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다는 소감을 남겼다. 그럼에도 신천지가 반드시 종말을 맞을 것을 믿는 만큼, 포기하지 않고 주목함으로써 지금 이 시각에도 미혹되는 한 사람을 막기 위해 노력할 뜻을 같이 전했다.

[기독교신문 창간 60주년 특집] 숫자로 확인하는 기독교신문의 어제와 오늘

기독교신문이 정진해 온 21953일의 시간들

◇3=대기독교신문은 창간 당시 제정한 세 가지 사시(社是)를 현재까지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개혁신앙(改革信仰)의 보수(保守)' '교회(教會)의 단결(團決)' '성도(聖徒)의 교제(交際)'를 위한 기독교언론 그리고 문서선교 매체로서 책임을 감당할 것입니다.

◇6=창간호에 명시된 기독교신문 1부당 가격은 6원이었습니다. 당시 6원의 가치는 지령 2000호 특집에서 밝힌 바대로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의 1/5 수준입니다. 1부당 가격은 이후 2년 만에 14원으로 올라 첫 두 자리 숫자를 기록했고, 1979년에 이르러 100원으로 책정됩니다. 2014년에 1부당 가격이 1500원이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2025년 1월 현재는 부당 1750원, 한 달 구독료는 7000원으로 소폭 상승한 상태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의 1/5 수준의 가격'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으나, 가격 이상의 가치를 지닌 신문이 되고자 하는 기독교신문의 노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16=기독교신문의 또 다른 가족은

전국 각 지역에 설립된 지사들입니다. 한 때는 사세확장의 일환으로 여러 해외지사들이 설립된 바 있으나, 현재는 국내지사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4개 지사, 수도권과 충청지역에 4개 지사, 영남지역에 5개 지사, 호남지역에 3개 지사 등 총 8개 지사가 운영 중입니다. 각 지사는 신문 배급과 독자 확장, 광고 수주, 각종 정보수집 등으로 기독교신문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23=2025년 2월 현재 기독교신문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23명입니다. 편집국을 비롯해 총무국 광고국 그리고 지난해 신설된 CTV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이 인원들이 밤낮 없는 헌신으로 종이신문 뿐 아니라 영상 인터넷 모바일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수많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24=타블로이드 배판 2면으로 출발한 기독교신문 발행면수는 그해 4



면으로 늘어났고, 1972년 잠시 폐간되었다가 복간한 후 타블로이드 8면 체제에 들어갑니다. 이후 다시 타블로이드 배판 체제로 돌아가서, 지령 1000호에 도달한 1987년에 12면 그리고 1992년에 16면으로 계속 증면이 이루어집니다. 현재와 같은 24면 체제는 '기독신보' 시절에서 '기독교신문'이라는 원래의 이름으로 환원하고, 전면 가로쓰기 시스템이 도입된 1997년부터 시

작되었습니다. 한 때 28면 체제로 확대된 적도 있으나, 주로 24면 체제를 기본으로 총회 부활절 성탄절 등의 특별한 시점에 증명하는 형식으로 제작이 이루어져왔습니다. 2015년 지령2000호 제작 당시에는 본지 40면에 특집색선 20면을 더해 총 60면을 발행하는 사상 최대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27=초대 사장 김정국 장로부터 현 사장 태준호 장로까지 총 27대에 걸친 역대 사장과 임직원들이 기독교신문 60년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선배들이 이루어온 발자취를 따라, 기독교신문이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훌륭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후예들도 분투하겠습니다.

◇166=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구성하는 전국 노회의 숫자는 166개입니다. 각 노회를 대표하는 이사 1명씩이 과송되어 기독교신문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문과 전국 166개 노회는 한 식구나 다름없는 관계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1만 1832개 교회, 3만 5999명의 교역자, 225만 530명에 이르는 성도들을 독자로 그리고 후원자로 여기며 기독교신문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2790=공식적으로 기독교신문의 호수는 현재 2470호이지만, 통권으로 계산하면 2790호입니다. 기독교신문이 제호변경과, 여러 차례 정간과 폐간을 극복하고 복간하는 등의 역사적 굴곡들을 겪으면서 발생한 격차입니다. 갖은 시련들에게 불구하고 기독교신문 직원들은 정론의 자세를 잃지 않고, 항상 혼신을 바쳐 제작에 임해왔습니다.

◇21953=기독교신문이 세상에 첫선을 보인 1965년 1월 4일부터 제2470호가 발행된 2025년 2월 11일까지 일수를 계산하면 2195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가 5만, 10만을 넘어서기까지 기독교신문은 항상 독자 곁에서, 총회와 한국교회 곁에서 좋은 친구와 동역자로 남겠습니다.

[약사신문 창간 38주년 특집]

트럼프 2.0 출범, FDA 기조 변화 대응 방안은

K바이오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에 따른 FDA의 기조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 중인 바이오기업들은 물론 임상 승인 신청을 진행 중인 기업들은 FDA의 변화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약사신문은 FDA 변화에 따른 임상 진행 기업들의 전략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① 아리바이오



“CRO에게는 우리의 신약은 수많은 프로젝트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기를 조언한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FDA 내의 가장 큰 변화는 허가 과정의 간소화 및 가속화로서, 바이오텍이 개발하고 있는 혁신적인 치료법 및 치료제에 대한 빠른 허가가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당사가 글로벌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AR1001의 허가가 종전보다 빠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생산되는 중간체 및 의약품 원료에 대한 과세 및 수입 및 허가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사는 AR1001의 원료 및 중간체를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판매될 허가용 완제품과 상업적 판매용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디앤디파마텍



“미국 IND 제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발판, FDA의 지침을 최대한 활용해야”

시장에서의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FDA와 관련한 변화는 제약 및 바이오텍 산업에 있어 신약 연구개발 과정에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규제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비용은 혁신과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향후 FDA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의 정책 목표는 연방 규제를 준수하는 데 소모되는 민간 비용을 대폭 줄여 미국의 경제 번영과 국가 안보, 그리고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이는 데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바이오텍에 있어 이러한 규제 완화는 개발 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③이뮤노포지



“FDA와 Pre-IND 미팅 통해 많은 질의응답을 갖고 하심탄화하게 논의해야”

우선 큰 이슈는, 미국 정부가 의약품에 부과하는 25%의 관세다. 미국이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만큼, 현재 수출 중인 원료 및 완제의

약품의 수익성에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의약품의 특성상, 미국 제약사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급하게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일반 공산품에 비해 쉽지 않다.

생산 기술이전과 허가 변경, 실사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의 수출 중일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약가가 계속 인하되기 때문에 이익률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신약의 경우, 개발비와 관세 부분을 일정 부분 약가에 반영하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 압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제약사들이 현재보다 더 신약 개발에 매진할 것이며, 중소 제약사들도 미국 내 생산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바이오시밀러나 제네릭 사업보다는 신약 개발을 조금 더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④CG인바이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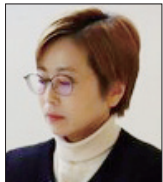
“선제적인 자료 준비를 통한 담당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보건 의료 부처의 인력, 예산감축 및 인허가, 약가정책 등 전반에 걸친 기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한다.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뿐 아니라 국립보건원(NIH),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포함한 복지부 전체 직원 5,200여명이 해고될 예정이라 한다. 당장 FDA에 대한 인력 감축은 의료기기 및 신약 심사 속도를 늦추고, 궁극적으로는 환자 신약 및 혁신 의료기기의 접근을 지연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약가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제약 바이오산업 관련 기조는 ‘사회보장 제도와 메디케어에 예산 삭감이나 은퇴 연령 없이 보호하고 지키겠다(Agenda 47)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의약품에 투자되는 비용을 강도 높게 관리 및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의약품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된 이유가 글로벌 비파마가 미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윤을 착취하여 미국의 약가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상황을 판단하거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건 의료 부처에 대한 혁신 및 약가인하 정책 등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기조변화들이 모두 국내 제약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인자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는 있다.

⑤비보존 제약



“연방 정부 구조조정예 속도를 내는 가운데 FDA도 사정권,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할 것”

최근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여러가지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고 특히 연방 정부 구조조정예 속도를 내는 가운데 FDA도 사정권에 들어갔고 이로 인한 여파로 의료기기 및 신약 심사 속도나 진행

[약사신문 창간 38주년 특별기고]

일자천금(一字千金)을 되새기며...

정재훈 고문(전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一字千金’의 정신으로 1987년 첫발을 내디딘 약사(藥事)신문이 어느덧 창간 38돌을 맞게 되었습니다. 창간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초

심을 지키며 대한민국 약업의 발전과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신 약사신문 식구들께 축하와 함께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사신문’이 내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애정과 격려의 눈으로 지켜봐 주신 독자분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의학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새로운 정보의 생산 주체와 생산 매커니즘, 전송 수단, 습득, 활용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 또는 진화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미, AI가 기사를 생산하고, 생산된 기사는 온라인을 통해 전송·구독되고 있습니다. AI는 그 기사들을 사회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그 가치와 최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ig-data에 기초하여 AI가 생산하는 기사는 매우 합리적으로 평가되고, 누구도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AI가 생산하는 자료를 무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도덕과 가치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기계와 AI가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장면이 이제 더는 공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AI와 기계가 생산하는 언어에서 정론(正論)이나 사람 냄새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一字千金’은 고전에 불가할지도 모릅니다.

여불위의 생각과 똑같지는 않지만, 약사신문 창간자이신 淸論 선생께서 창간의 정신으로 一字千金을 택한 것도 약사신문이 내는 기사 한마디 한마디가 천금의 가치로 세상을 건 강하도록 견인하며, 기사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자는 바람이었습니다. 애초에 약사신문 발간의 또 다른 가치는 ‘국민 보건’입니다. 약사신문이 내는 한자(一字), 한자는 생명을 위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언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목숨이며, 목숨은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사신문의 “一字”는 생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藥事를 통해, 넓게는 국민 보건에 관한 지식·정보의 알림과 논의, 비평을 통해 살림(生)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요? 국가가 아닌 세력적 지도자들의 말과 주장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달라지고, 그 언어는 마치 바벨탑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던 때에 사람들의 외침과 같이 어지러워서 사람들은 소통을 포기하고 흩어져 갑니다. 언론의 장에서도 거짓이 난무하고 책임을 소홀히 여기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문장과 연설은 실제적 생명과 도덕을 포기하고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급급합니다. ‘一字’가 나와 내가 속한 진영의 ‘千金’만을 쫓고 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의 문장 속에서 가난과 전쟁으로 파헤쳐 가는 힘이 약한 나라 백성의 목숨과 삶을 구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千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권력자들의 웅변도 어린 생명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들여다봐도, 12. 3. 계엄 이후 양 진영에서 쏟아져 나오는 언어 속에 통합을 향한 ‘千金’을 볼 수 없고, 대신에, 진영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단어만이 난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진실성과 도덕성, 신뢰성, 고품격 창의성, 공익성을 갖춘 한마디가 절실합니다. 약사신문 창간 38주년을 맞아, 淸論 선생께서 주창하신 ‘一字千金’의 정신을 되새기며, 다짐해 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한 손짓과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⑥압타바이오



“규제 기관과의 조기 소통도 중요하다. FDA 등 규제 당국과 초기에 긴밀히 소통하여, 임상 설계와 진행 방향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반영해야”

압타바이오는 혁신 신약 개발에 주력하는 바이오기업으로, NOX 저해제 및 AptA-DC(압타머-약물 복합체) 플랫폼을 바탕으로, 당뇨합병증, 급성 신장손상, 황반변성, 암 등 의학적 미충족 분야의 first in class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FDA 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압타바이오는 임상 데이터의 안전성 및 효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FDA 및 기타 규제 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기독교연합신문 창간 37주년 기획]

“광야를 향해 가는 용기 있는 기독교언론인 되기를”



뉴미디어 시대, 창간 37주년을 맞아 기독교연합신문은 기독교언론의 사명과 역할을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의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언론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독교언론은 어떻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나갈 수 있을까. 공의로운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기독교언론인을 후원하고, 사회언론과 한국교회의 가교역할을 해 온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사장:지형은 목사·공동대표 안기석 변상욱, 이하 한기언)’을 지난 1월 23일 방문했다.

한기언은 지난 2012년 3월 6일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 이사장에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원로)를 위촉했으며,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원로)를 2대 이사장으로 지난 13년간 사회언론과 교회를 잇는 건강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 기독교언론의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 해온 한기언의 활동을 조명함으로써, 향후 기독교 언론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교회의 부정적 프레임 고착화’ 우려

한기언의 태동 배경에 대해 공동대표 변상욱 대가자는 “한기언이 창립 이후 첫 번째로 주목한 것은 주요 일간지와 방송매체에 한국교회와 관련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한국교회의 사회적 기여와 헌신적 노력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매년 한국교회에 관한 애뉴얼 리포트를 발간하고 기념 발표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발족한 2010년대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적 시선은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이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기독교 신뢰도는 21.3%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천주교 29.2%, 불교 28.0%로 3대 종교 중에서도 최하위 점수였다. 이 시기 한국교회 주요 사건의 언론보도를 분석해보면, 정치 지도자를 둘러싼 종교 편향 논란이 거세게 일었으며, 샘물교회 아프칸 파립사태, 종교인 과세 논란, 대형교회 세습 문제가 주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교회 성장 곡선 역시 1990년대를 기점으로 정점으로 올라갔다가 이후 하강하기 시작했다. 1990~2000년대까지 누적된 한국교회의 문제들이 2010년대 초반 사회언론을 통해 노출되면서 교회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미디어를 통해 양산된 한국 개신교 담론은 사회적 비판의 증가를 불러왔으며, 결과적으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고착화했다는 것. 한기언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언론과 소통하며 객관적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교회를 향한 부정적 여론몰이를 막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무엇보다 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공의로운 언론문화 창달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이사장 지형은 목사는 “한국교회를 향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반지성과 거짓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 한국교회와 사회의 가교 역할에 힘쓰고, 언론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기독교 언론인들을 후원하기 위해 한기언이 설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매체 시대가 본격화되고 한국교회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기독교 사회운동 단체와 연구출판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국교회 위기 극복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주력했다. 이를 위해 2012년 창립총회를 가진 후 한국교회 긴급 좌담회를 열고 일반언론과 한국교회의 소통을 위한 열린 포럼을 개최했다. 이어 ‘전 국민 여론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15개 언론사(일간지 12개, 공중파 TV 3개)의 교회 관련 보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밖에 △종교인 과세 △교회 세습 △김영란법 △교회의 정치참여 △가짜뉴스 △AI 활용 등과 같은 교회와 관련된 민감한 사회이슈를 주제로 정기포럼을 열었다. 매년 ‘언론이 바라본 한국교회 리포트’를 발간해 한국교회에 자정의 목소리를 내왔다.

또 언론 현장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기독교언론인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표창하며 기독교언론인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 매주 발행되는 ‘뉴스리뷰(www.kcmf.net)’ 코너에서는 주간 기독교 이슈와 인물, 핵심키워드를 선정하고, 네이버 뉴스 서비스 검색을 토대로 교회 관련 긍정·부정 보도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기독교언론 내 매체들의 연합과 교류를 위해서도 힘써왔다. 지형은 목사는 “선임 기자들과 젊은 세대의 기독교 언론인들이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갖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때 식견이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기언은 기독교 언론인들이 기독교 복음을 이 시대에 변증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는 각오를 전했다.

기독교언론인, ‘기독교 저널리즘’ 실현할 때

한기언 설립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뉴미디어의 부상으로 급격한 생태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에 따라 미디어 환경이 다변화되고, 대중의 정보 소비 방식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사회언론과 기독교의 브릿지 역할을 해온 한기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윤실이 지난 2023년 발표한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한국교회 신뢰도는 21.0%로 10년 전의 조사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고 다음세대가 떠나는 분위기 속에 다시 기독교언론의 시대적 사명을 되새겨야 할 때다.

[기독교연합신문 창간 37주년 기념사]

“교회의 소명을 발굴하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양병희 사장

할렐루야! ‘교회를 살리는 신문’을 목표로 한결같이 달려온 기독교연합신문이 창간 37주년을 맞습니다. 1988년 2월 1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사시로 세운 기독교연합신문은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오직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 전파에 매진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응원과 애정을 아끼지 않은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역사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7년, 기독교 언론으로서 단단히 뿌리 내리고 푸르른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낌없는 기도와 전폭적인 헌신으로 귀한 자양분이 되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준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기독교연합신문은 초교파 신문으로 창간한 이래 복음 전파의 사명을 품고 진리의 등불이 되겠다는 각오로 한국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고자 발로 뛰었습니다. 상처받은 이웃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과 백석총회, 백석학원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되 백석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동역하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위협하는 세속적 가치관이 한국교회 안으로 끊임없이 스며들고 있지만, 오직 성

경에서만 답을 찾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너와 내가 함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며, ‘개혁주의생명신학’과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앞장서 구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발전을 거듭하는 인공지능의 도전 앞에 과학기술의 명암을 잘 구분하며 하나님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선교의 도구로 선용할 것입니다. 가짜뉴스가 만연한 세상에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하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선교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며, 140주년을 기점으로 한국교회가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전기를 만들고자 기독교연합신문은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세대를 향한 과제를 발굴해 해법을 제시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문화 세상 속 교회를 향한 소명을 현장에서 발견해나겠습니다.

지난 37년 걸어왔던 것처럼 기독교연합신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를 선도하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세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외칠 것입니다.

계속해서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언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나겠습니다.

37년 동안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 옥성삼 박사는 “한국교회 현실상 교단 언론은 과도하게 교회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처치 저널리즘’에 매몰되기 쉬운 환경에 있다. 그렇기에 더욱 치열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의 소금과 빛으로서 한국교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기독교 저널리즘’ 실현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회가 게토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언론이 소속 교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단 매체의 성격을 넘어 실행에 다닌 교단과 신학계에 대해서도 비판적 고언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지형은 이사장은 “사회적 갈등과 이슈에 관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해석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미디어시대, AI 적극 활용해야

언론보도에 있어 AI의 활용 가치는 자명하지만, AI가 기존 언론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왔다. 오히려 SNS를 통해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악의적인 짜깁기 뉴스가 퍼지는 상황에서 공신력 있는 ‘기독교저널리즘’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예측이다. 기독교 언론인도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뉴미디어시대, 기독교언론의 역할로 공동대표 변상욱 대가자는 “기독교언론이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해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부작용 위주의 보도로 피해를 회피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미 디지털과 AI가 하나의 생태계 현상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전환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AI를 교회에서 젊은 세대와 접촉하기 위한 도구로 삼거나, 노인세대의 편리를 위한 활용, 목회 및 선교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나 현장경험 사례를 보도해야 한다는 것.

한기언은 향후 한국교회와 사회언론 사이에서 건강한 담론을 형성하는 플랫폼으로 새롭게 발돋움할 방침이다. 4050 세대 현장 언론인 전문가와 젊은 목회자, 학자 크리스천 사업가들과의 연합을 토대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예정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언론의 역할은 유동적이지만, 기독교언론이 사회와 교계의 의제를 성서적으로 해석하고 보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피력했다.

“기독교언론인이 광장이 아니라 광야를 향해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한기언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기독교 언론인들에게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기자 수첩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마음으로

농수축산신문 김신지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3월 14일까지로 2주간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산발적인 철새 북상 시기에 대비해 강화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AI 발생 건수는 총 35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23년 겨울 11호 발생, 85만 마리를 살처분한데 반해 올 겨울에는 51호의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했으며 932만 마리가 살처분돼 고병원성 AI 발생률은 46배, 살처분마릿수는 약 11배 상승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발표를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해 AI 퇴치 등에 최대 10억 달러(한화 약 1조4300억 원)를 투입한다고 밝히며 2021년에 비해 계란 12개 기준 가격이 237% 올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AI 발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기는 한 달가량 빨라졌으며 야생조류에서도 AI 검출건수, 검출지역이 각

각 19건에서 38건으로 2배, 9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으로 약 3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고 조언하면서 차단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염된 사료, 물, 장비, 인력 이동 등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어 철저한 방역과 선제적인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가금 관련 단체들은 △농장 출입시 철저한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역교육 실시 △전통시장 방역 실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다.

고병원성 AI가 확산될 경우 업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농가들은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가금농장 관계자는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최소화하고 농장 안과 밖에서 장화를 갈아신는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날 때까지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불확실성의 흑한기, 제약바이오 ‘버티기’ 가능할까

메디칼업저버 배다현 기자

2025년 새해가 어느 때보다 어두운 분위기에서 시작을 맞았다.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안이 가중된 상황에 연말 연초 발생한 흉흉한 사건들까지 겹치며 희망찬 분위기로 새해를 맞이할 어려워졌다.

국내 정치 상황 변화가 최근 경제 불안의 가장 직접적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사실 징조는 이전부터 시작됐다. 내수 회복이 더뎠고 수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올해부터 1%대의 저성장이 예견됐다. 이달 예정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도 글로벌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주요 요소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이 ‘버티기’에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쟁력 강화뿐이다. 잠잠히 연구개발(R&D)에 집중해 신약 개발 성과에 도달하는 것이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 업계 주요 인사들도 내나 할 것 없이 공격적 R&D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쉬운 점은 현재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에 일부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제약바이오산

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하기로 계획했다. 대통령 직속에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위원회 출범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은 매우 컸다.

그러나 위원장인 대통령의 거취가 불분명해지면서 지난해 말 예정이었던 위원회의 출범은 무기한 연기됐다. 2023년 출범한 국무총리 직속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있으나 최근 국무총리 탄핵으로 업무 연속성이 끊겼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 지원과 관계없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올해도 R&D 투자를 지속하고 신약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자의 성과가 단기에 나타나기 어려운 산업의 특성상 경제적 흑한기가 길어질수록 업계의 버티기는 힘에 부칠 것이다. 하루 빨리 국정 운영이 정상화되고 신약 연구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이어지기를 바라본다.



수입보다 소통이 먼저

원예산업신문 나동하 기자

정부의 TRQ(자유관세할당) 양과 수입이 산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조생양파 출하를 앞둔 시점에서 1만 톤의 수입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경우,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여기에 더해 올해 개정될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이 정부 개입을 더욱 용이하게 만든다는 점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저장 양파 재고가 충분하고, 민간 수입도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TRQ 수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특히 개정된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이 가격 상승 시 개입 기준을 낮춰 정부 개입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된 반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개입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농가 보호 조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산지의 반발을 키웠다.

정부가 TRQ를 활용한 전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여러 차례 TRQ를 시행해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내 농가가 입은 영향을 두고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입을 통해 단기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약

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물론,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TRQ

수입이 반복되면 국내 농업의 생산 기반이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자급률과 안정적인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지에서는 정부가 수입을 통한 가격 조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농가와 유통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책 추진이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수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가격 변동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생산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방적인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조율이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날개 꺾인 청년농...두고만 볼텐가

한국농어민신문 구정민 기자

올해 초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지원 사업 대출 심사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청년농업인들이 대거 탈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 부족과 무책임한 행정 운영으로 전복을 비롯한 전국 신청자의 약 75%가 대출 신청에 탈락된 것이다.

정부의 청년농 3만 명 육성계획을 믿고 농업을 통해 미래를 꿈꾸던 청년들은 계약금 손실, 영농계획 무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

특히 농지구입 및 시설시공 계약 체결을 서둘러 진행했던 다수의 청년농들은 자금 마련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까지 끌어들여 한순간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돼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다행히 전국 청년농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 농식품부가 긴급 예산을 투입하며 뒤늦게 대상자 모두를 구제하겠다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무너진 정부에 대한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분위기다.

전국 청년농이 2만 명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2027년까지 단기간에 3만 명을 새로 육성한다는 목표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수였다

는 말도 나온다.

정부가 숫자 놀리기에만 급급해 예산도 없이 청년농을 무리하게 뽑아놓고 결국 실패한 자 부실한 청년농을 걸러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도 여전히 아쉬움을 더한다.

정부의 졸속 농정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은 청년들은 여전히 농업에서 미래를 보고 꿈을 꾸며 힘겨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정부를 믿고 푸른 꿈을 안고 농촌에 정착한 청년농들이 비상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후계농 육성자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재검토가 필요하다.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예방하고 보완해야 한다.

정부가 농업의 미래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 추진하는 청년·후계농 육성 정책이 청년들에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 있길 기대해 본다.





회원사 인사

약사공론

약사공론 사장 선임

약사공론 사장에 김종환 前서울지부장(사진)이 선임됐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지난 2월 27일, 제41대 집행부 인선 일부를 발표했다. 이에 약사공론 사장에 김종환 前서울지부장을 약학정보원 원장에 유상준 前서울지부 보험이사를 의약품정책연구소장에 김대진 前동국대 약대교수 등을 선임했다.



세행정' 구현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제신문 방문에는 김봉승 국제청 대변인실 공보3팀장이 수행했다.

일고신문

제5회 온라인
진각연회를동 공모전



밀교신문(발행인 능원 정사)를 발행하는 대한불교 진각종이 '제5회 온라인 진각연회를동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울동 △뮤직비디오 △릴스(쇼츠) 등 3개 부문으로, 참가 대상은 신교도(심인당, 청년회, 종립학교, 유관기관 등)와 어린이(자성동아,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로 나눠 접수받는다. 단 릴스는 대상 구분없이 접수하면 된다.

연회 울동곡은 '꼭두각시등', '힘내라 한국', '연등불 켜지면', '연등회', '빛나요' 등 5곡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오는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양식에 맞춰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viya0635@naver.com)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942-0635

병원신문

대한병원협회-의료기기산업협회
업무협약



병원신문(발행인 이성규)을 발행하는 대한병원협회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지난 2월 19일 대한병원협회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내 의료산업 육성 및 발전 △국내외 의료전시사업 활성화 △전시사업의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국내 병원 및 의료산업의 해외 진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The Yakup

바이오 규제 혁신 컨퍼런스

약업신문(발행인 함태원)이 '2025 BIO Regulatory Innovation Conference(바이오 규제 혁신 컨퍼런스)'가 오는 4월 23일과 24일 인천 송도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약업신문이 주관하며 'Roadmap to the Finish Line(결승선까지 로드맵)' 주제로 열린다.

컨퍼런스에서는 기업들이 미국 시



장 진출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CMC(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부터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인허가 전략까지 신약 개발의 핵심 과정 전반을 다룬다. 행사 첫째날에는 △미국 규제 전문가이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박준태 박사 △미국 규제 전문가 신양미 박사 등이 연사로 나선다. △에스티팜 R&D 총괄 최준영 박사도 연사로 무대에 올라 기업의 실전 전략을 들려준다.

컨퍼런스의 자세한 정보와 참가 등록은 2025 BIO Regulatory Innovation Conference 공식 홈페이지, 약업신문, 한국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6953-4056

TIMES CORE

틴 리포터 기사 기념 액자 서비스 시행



주간 영자신문 틴타임즈, 주니어타임즈, 키즈타임즈, 킨더타임즈를 발행하는 타임즈코어(대표 이덕수)가 '틴 리포터 기사 기념 액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틴 리포터가 되어 작성한 영어 기사를 각 영자신문에 실어 기념액자로 간직할 수 있도록 제

공한다. 기사는 자유주제로 150~200개 단어를 포함해 작성해야 하며, 신청은 메일(admin@timescore.co.kr)로 접수받고 있다. 이후 기사가 채택되면 담당자가 전화 또는 메일로 발행 정보를 안내받고 액자를 주문할 수 있다.

액자는 A3 또는 A4 사이즈로 제작 가능하며 가격은 각 15만원과 12만원이다.

문의: 02-392-3800

한국교육신문

교원 마음건강 회복에 힘쓴다



한국교육신문(발행인 강주호)을 발행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상담학회와 함께 교원의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해 힘을 모은다. 양 기관은 지난 2월 2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활동 침해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교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 관련 연구 수행의 상호 지원 및 협조, 교원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연수 등 추진이다. 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행동·정서·관계 영역의 전문상담 연계 서비스 지원,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이해 및 적극적 해결을 위해 연수 및기고 등으로 홍보 강화, 관련 법령 및 정책 마련에 협력 등이다.

전문신문협회보

1989년 5월 1일 창간
www.kopma.kr



이 컷은 본 협회 회원사임을 나타내는 표시

회장·발행인 김광탁 명예회장·편집인 박두환 편집고문 김시중
부회장 함정기 김관홍·정재환·김종철 | 상임고문 방재홍
이 사 이근호 박연준·강현욱·김중규·홍 준 | 감 사 백용태·오경섭
방두철·김성진·양옥석·조경욱·주동담 | 고 문 함용현·김시중·유태우·이덕수·양영근

07217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당산동4가) 당산 SK V1 센터 E동 407호
대표전화 (02)334-7251 팩스 (02)334-7279
구독신청·광고문의 (02)334-7252 메일 kosna1964@naver.com

발행처 한국전문신문협회 | 인쇄처 한국씨티에스

(주) 한국씨티에스

전문신문 제작의 역사 SINCE 1989

한국전문신문협회와 한국씨티에스는 전문신문의 역사를 함께 합니다.



본사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 2F
관리부 02 362 1199 영업부 02 362 6677 전산실 02 362 5311

제작센터
서울시 부일로 815번길 56-67 (운수동)
02 2684 3377



2024년 12월~2025년 2월 정기간행물 신규 등록 현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간: 2024.12.01.~2025.02.28.)

등록번호	제호	회사명(법인명)
서울 다04524	내고장 서구	내고장서구사
서울 다01398	내포시민뉴스	내포시민뉴스사
서울 다50827	유교문화신문	유교문화신문사
서울 다01248	영서신문	(주)영서신문
서울 다50826	영동타임즈	(주)리치월드트레이
서울 다00307	광산저널	결따라(주)
광주 다50828	G밸리타임스(지밸리타임스)	지밸리타임스(주)
부산 다04523	다대포신문	다대포신문사
부산 다04522	기장라이프	기장라이프사
부산 다04526	명지라이프	명지라이프사
부산 다04525	낙동강신문	낙동강신문사
부산 다04527	사상신문	사상신문사
부산 다00457	봉성신문	봉성사회협동조합
강원 다00458	구례군민일보	(주)구례군민일보
경북 다50829	한국목사신문	한국목사신문사
전남 다50825	한국유교신문(韓國儒敎新聞)	한국유교신문사
전남 다01288	더플러스오창	더플러스오창사
충남 다50824	세계불교교황청신문	(주)제이에스에스미디어
충북 다01551	상주문경신문	(주)상주문경신문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추후보도문 게재 사례

2023서울조정1008·1009/1010·1011 각 추후·손배 청구

재활센터 교사가 청각장애를 가진 4살 아동을 학대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추후보도하고, 유감표명도 조정합의서에 기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재활센터 교사가 청각장애를 가진 4살 아동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며, 해당 재활센터의 원장은 다른 아동 학부모에게 피해 아동 가족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 아동 할머니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해 아동의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허위 내지 과장하며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보도에 앞서 청각장애 아동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접촉이 필요하다는 전제 사실을 누락하고, 피해 아동 할머니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보도하여 신청인들의 명예와 센터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며 추후보도와 각 5백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무죄판결에 따른 추후보도 게재를 수용하였으며, 금전배상이 어렵다면 직접적인 사과를 원한다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유감을 표명했다. 중재부는 무죄판결에 따른 추후보도 게재와 피신청인 측의 유감표명을 포함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했다.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책자발간

세무사신문

세출검증 세무사편람

세무사신문(발행인 구재이)을 발행하는 한국세무사회가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을 발간해 전 회원에게 보급을 시작했다.

이 책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직접 집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이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사가 이 직무를 수행해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받은 직후부터 100일간의 집필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에 필요한 세무사회 업무수행기준과 계약서, 사업비결산서검사보고서 및 검증조서 등 필수적인 업무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 등 세무사의 세출검증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해 세무사가 예산지출 과정에서 검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요령을 제시한다. 문의: 02-521-9455



약업신문

藥事年鑑(약사연감) 2025년판

약업신문(발행인 함태원)이 '藥事年鑑(약사연감) 2025년판'을 발간했다. 이 책은 약업신문에서 지난 1974년 이후 해마다 출간해 오고 있다.

약사연감은 제약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새로운 시장창출을 선도하고 최종적으로 업계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발간되고 있다. 2025년판 약사연감은 △제약/바이오 △행정/제도 △건강기능식품 △해외 약업 등 총 4부로 구성 되어 있다. 부록으로 약업계 주요인사 3천여명의 최신 프로필이 포함된 인명록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대한 폭넓은 접근과 해석은 물론 최근 연도별 의약품 생산실적과 주요 제약 바이오기업의 경영분석,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의약품 산업 전반의 최신 통계 자료와 변화된 약사제도 전반에 관한 해설과 전망이 담겨 있다.

'2025년판 藥事年鑑'은 제약바이오 의약/의료 산업 전반에 걸쳐 분야별로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각종통계와 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경영전략 수립시 구체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격: 130,000원 / 문의: 02-3270-0114



■회원사 발행인 칼럼 | 식품외식경제 박형희 발행인

저성장시대 외식업 지속 성장을 위한 방안



설 명절이 지난 지 한 달여가 됐지만 외식업계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설 명절을 기점으로 전과 후에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명절에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 명절 전후에 외식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절 후 10여 일이 지나면 외식업 경기가 되살아나고는 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흐름이 무너지고 있다. 침체된 내수 경기 탓이라 할 수 있다.

외식업은 물론이고 자영업 전체가 무섭게 무너지는 모습이 체감은 물론이고 각종 통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수많은 업종 중 폐업이 가장 많은 업종이 외식업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입증되었다.

최근 한국개발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올해 초 정부가 올 경제성장률을 1.8%, 한국은행이 1.9%로 전망한 것보다 낮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매우 비관적으로 전망지를 제시했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수 경기가 살아나야 하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정부 지출이 많아야 하는 것이 공식이지만 현재 한국으로서는 이 3가지 모두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다. 경기는 당분간 회복되기 힘들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역사상 최악의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영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를 보면 어느 것 하나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 내수 경기침체 장기화와 정치 혼란, 트럼프 스톱 등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코로나19 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한 경기 타트로 외식업계가 코로나19 위기 당시보다 더 어려워질 것은 틀림없다.

더욱이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을 지속한다면 당분간 외식업 경기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외부 환경을 통해 내 접포가, 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은 버리는 것이 좋다. 각자도생하지 않으면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꾼 외식업체는 수없이 많다.

코로나19 위기 전보다 매출을 5배, 7배, 10배까지 끌어올린 업체들도 여럿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변화하고 혁신한 결과라 하겠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전문신문협회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주간전문신문 납본을 대행해 드립니다

누구나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도서관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규정에 따라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국가의 지적문화유산으로 영구 보존하여, 정보 제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 납본대상자료 : 도서, 연속간행물(잡지, 신문, 대학 및 학회지, 정부간행물) 등
- ◆ 제출시기 및 부수 :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각 2부씩
- ◆ 제출처 : 한국전문신문협회 납본센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한국전문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을 받아 납본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 납본이 어려우신 신문사에서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을 대행해 드립니다.

우편 및 방문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1센터 E동 407호

문의 ☎ 02-334-7251~2

왜? 전문신문에 광고해야 하는가?

정보 홍수시대에 전문신문은 광고매체로서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신문은 일반신문과 같이 계절이나 요일에 의한 부수의 변동이나 신문구독자의 변동에 따른 불안정이 없다.

전문신문의 광고는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 시장이 명확하다. 광고목표에 도달하기 쉽기 때문에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독자의 관심이 높은 기사와 병행해서 게재되는 전문신문 광고는 광고의 충격이 높다. 따라서 광고주가 자사 상품이나 기업 이미지에 알맞은 전문신문을 선택하면 매우 효과적인 광고가 가능하다.

전문신문은 일간지와 달리 한번 보고 버리는 신문이 아니라 오래 보존됨으로써 광고의 생명이 길다.

전문신문은 독자의 목적의식과 강하게 밀착되어, 전문사항에 대하여 높은 안목을 갖고 편집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

전문신문 광고시점에 이벤트, 기획행사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유통경로에 쉽게 접근하면서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특히 한국전문신문협회에 가입된 전문신문은 그 품격이 검증된 만큼, 안심하고 광고를 의뢰할 수 있는 좋은 매체이다.

전문신문의 기사면은 비교적 시각효과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면이 상대적으로 주의집중효과를 크게 받을 수 있다.

일반신문, 뉴미디어의 정보량 범람의 시대에 독자는 정보에 대해 방어적, 선택적 경향이 강해져 전문신문을 더 신뢰하게 된다.

전문신문은 지면 허비가 적기 때문에 타 매체와의 비교해서 광고비용이 싼 효율적인 매체이다.